

울/산/동/강/병/원



울산시민 건강파수꾼 4반세기 고급·양질 의료로 인간사랑 실천

지금은 울산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태화강의 수질이 개선되어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20여종의 철새도 날아든다. 마침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든 최대의 정유업체 SK가 100만평에 이르는 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은의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황량했던 울산에 더 없는 선물이다.

태화강이 바로앞에 흐르고 강을 따라 심리 대나무숲 공원이 이어지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울산동강병원! ■취재 전양근



■ 60년 박영철 이사장은 당시 울산읍사무소 옆에 일제시대 우시이병원이 있던 자리를 24만환을 주고 사들여 간호사 3명 등을 데리고 서울의원을 개원했다.
 □ 종합 건강 검진센터



태화강 굽어보며... 시민 건강향상 매진 25년

동강병원(이사장 박영철, 원장 김근홍)은 80년대초 의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울산에 건립하여 25년 동안 지역사회와 고락을 함께하며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산재환자 치료는 물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개원 이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이 아끼고 신뢰하는 이웃같은 병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울산동강병원은 서울의원(60년, 사진), 서울연합병원(70), 울산고려병원(76)이 모태가 되어 77년 의료법인이 설립되고 81년 6월 13일 420병상 규모의 당시 지역 최대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5공화국 초창기이던 이 때 산업도시 울산의 인구는 50여만명으로 우리나라 7대 도시였음에도 경제개발논리에 뒷전으로 밀려 보건 의료 및 환경, 문화 등이 취약한 상태여서 전체 임상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탄생은 지역주민에게 단비와도 같이 아주 친근하고 반갑게 다가왔다.

희망과 도약, 내년 입원 600명 목표

어느덧 한 세대에 버금가는 세월이 흘러 개원 25주년을 맞아 동강병원은 2006년 슬로건을 ‘희망과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울산시 유일의 향토병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명과 책임감을 더욱 다지고 있다.(울산은 평균 연령 37세로 광역시가운데 가장 젊은 역동적인 도시)

동강병원은 현재 6백여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524병상(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병상 54베드 별도)을 운영, 일일평균 외래 1천2백여명, 입원환자 5백여명을 진료하고 있으며(진료과는 내과 등 22개과) 울산 및 인근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속에 지속적인 진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선진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주5일제가 시행된 지금도 전체과 토요일 진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96년 1월 영남지역 최초로 토요일 종일 근무제를 도입해 공단 근로자는 물론 직장, 학생 등 평일에 시간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은 노사간

단협에서 휴무일로 했으나 환자편의를 위한 정상진료에 노조가 흔쾌히 화답해 노사화합을 보여줬다.

의료정보화 가속화

3월 Full PACS 도입, 5월부터 64 channel MD CT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음단계로 EMR과 Full OCS를 추진하고 있다.

또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진료의뢰센터(DRC)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병원 전체 업무의 전산화 및 디지털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역군

교육·연구·진료 중심의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동강의학연구소를 개설해 연구와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개원이후 4반세기에 이르는 세월동안 동강병원은 무수한 의료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다. 울산지역내 개원의를 포함해 의사 가운데 1/5이 병원출신으로 지역의료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진료협력병원 및 개방병원 협약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울산지역 110개 병·의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해 의학정보 교류, 환자의뢰와 회송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퇴원후 환자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존중의 인술을 바탕으로 양·한방 협진을 통한 동서의학이 접목된 제3의학 창출과 전문화,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주민 건강증진 및 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 진료시스템을 울산 및 동부경남권 최초로 도입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다.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해 울산 및 온산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의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해 근로자들의 직업병 및 근로환경개선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MRI 촬영(위) 및 판독 장면(아래)



■ 신생아집중치료실
□ 어버이날 행사

소 수술을 하며, 중환자실은 내과계 12병상, 신경외과계 13병상으로 구분되어 장기환자관리를 위한 통합중환자실 18병상을 별도로 기동하고 있고, 신생아집중치료실, 미숙아실,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화단결로 끈끈한 정 나뉘

동강병원은 조직력이 아주 견고하다.

그 인화단결의 원천은 동강마라톤대회, 입원환자를 위한 가을 음악회,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 등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활기차게 진행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동강마라톤대회는 전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직원 산행, 체육대회, 송년회 행사와 축구회, 테니스회, 낚시회 등 여러 원내동아리 활동으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개원 25周 Home-coming day

올해 개원25주년을 기념하여 한때 몸담았던 옛 직장동료를 초대하여, 근무했던 당시를 회고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Home-coming day(6.17)를 준비하며, 매년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과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임직원의 자아개발과 자질함양을 위해 우수사원에 대해 자매결연 병원인 127년 역사의 일본 하라산신병원에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의료진 해외연수 및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센터 우수 평가(24시간 전문의 진료)

응급센터(27병상) 진료는 상주 전공의 3명을 포함 의료인력 7명이 맡고 있다.(응급의학과 개설)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도 두루갖춰 지역응급의료센터평가에서도 최고의 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았다.

전문진료센터

소화기병센터를 99년 개설한 이래 심혈관센터, 대장항문센터, 화상치료센터, 아토피클리닉, 여성피부미용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수센터를 확대해 전문진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0개의 수술방을 운영, 연간 8천여건의 대·



■ 동강 마라톤 대회
□ 입원환자를 위한 가을 음악회



여성·청소년 폭력피해자 맞춤형 보호

사회적 약자인 여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보호시스템인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가 서울, 부산, 경북에 이어 전국 네번째로 문을 열었다.

울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동강병원 연구동 5층 4평 규모에 진술녹화실, 영상진료실, 상담실,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경찰관(3명), 간호사(1명), 상담사(2명, 행정요원 1명 별도), 자원봉사자 1명 등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와 정신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의 의료진도 지원된다.

동강마라톤대회

국내의료기관으로는 가장먼저 2001년부터 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대회는 오는 10월 문수월드컵경기장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

무료진료봉사

매년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한방을 병행한 무료진료로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치료 뿐만아니라 질병예방 측면에서 개원 이래 매년 인근 농촌지역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동강병원·동강한방병원 직원후원단체인 동강도우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시 수술비를 지난해 5월부터 매월 지원하고 있다.



■ 정학기금 마련 나이팅게일회 일일 찾집



□ 소아환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일일찾집, 음악회, 바자회..

나이팅게일회에서는 매년 일일찾집을 열어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가을음악회를 해마다 열고 있다.

무의탁독거노인 및 소아암환자 돕기, 자선바자회, 사랑의틀니 보내기, 시력보존센터의 백내장수술비 지원, 소아환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최고수준 의료 지향

울산 동강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우수한 수술장비를 보유해 모든 안과 진료분야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각막이식술과 공막이식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강병원 안과는 지난 1월 1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기증된 안구로서 2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각막이식수술을 했다.

머리에 스텐트를 삽입해 시행하는 중재적시술도 성공을 거두는 등 지역 최고수준의 의술을 지향하고 있다.

화상진료센터 개소

울산지역 최초로 문을 연 화상진료센터는 잇단 사업체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인한 화상환자를 제때 치료,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재활치료 및 성형까지 가능한 전문진료센터로 외과와 성형외과의 협진으로 운영된다.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 선정

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해 5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병원중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시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제1차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범서읍 자매마을 무료진단 및 검진
□ 무의탁 노인 '사랑의틀니 보내기' 자선 바자회



■□ 접수 창구 앞
□■ 2005년 전직원 친절 교육



병원앞 휴식공원 조성 계획

환자편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희망해온 한방병원과 본관을 연결하는 육교(차량도 통과) 건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육교가 가설되면 한방병원 옆 공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세워 병원 앞마당 주차 차량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는 등 환자 휴게장소로 단장할 예정.

향토병원 사명다할타

울산지역은 110만 인구에 비해 모든 진료과목을 갖추고 다기능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 동강병원과 울산대병원 2곳밖에 없어 타도시에 비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동강병원은 울산 유일의 향토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전문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최첨단장비를 갖춰 진료를 받으러 타도시로 옮겨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김곤홍 울산동강병원장



김곤홍 동강병원장은 ‘친절·화합·성실’ 이란 원훈아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병원’을 구현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 기본 정신은 환자를 내 가족같이 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 2005, 상반기 경영합리화 회의
□■ 외래 진료대기 모습



**동부경남권 의료인력 양성의 산실,
시민 건강지킴이 25년**

“81년 오픈당시 지역 유일의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첫째 인턴을 파견받아 수련을 했고 이듬해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동강병원이 개원 이래 25년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지역의료에서 실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

“지금은 울산시내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 병원도 여러곳 있지만 81년 6월 개원당시 울산 지역엔 큰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내 부속병원이 있었지만 작은 규모였지요. 그 정도로 의료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날로 팽창하는 산업도시에 의료시설이 열악했는데 특히 산재환자 진료시설이 취약했습니다. 개원 이래 산재환자를 많이 봤는데 현재는 그 비중이 줄었지만 전체환자의 1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센터화 박차, 당일통원수술센터 가동

김근홍 원장은 의료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

구하기 위해 부족한 임상과를 추가개설해 양질의 고급진료를 하는 것이 으뜸 목표이다.

“내과-소화기병·심혈관센터, 외과-대장항문·복강경수술센터 등 센터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당일통원수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데 여기서 소아탈장 및 이에 준하는 작은 수술, 성인치핵 복강경담낭수술 등을 맡는다.

외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식수술 중 신장이식수술을 하기 위해 신장내과와 혈관외과 인력충원을 희망하고 있다.

동강병원은 앞으로 운영병상을 600베드로 확충하며 이에 상응해 최신 첨단 방사선 치료시설 등을 갖추고 심장수술 및 신장이식 등 이식수술로 진료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2003년 3월 취임하면서 바로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6개월만에 110개 의료기관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둔 것과 그 동안 숙원이던 심혈관센터와 소화기병센터를 개설하고 인력을 충원해 3월부터 진료에 들어간 것을 보람으로 꼽았다.



■ 김곤홍 원장
 □ 동강병원 준공(81년 지역 최대 규모)

지역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13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개방병원은 현재 순환기내과 한 곳에서 개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은 전공의 수련을 하는 종합병원이 별로 없어 앞으로는 장비나 유희병상을 개원의가 공동이용하는 개방병원제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원장은 개방병원 수가문제 등 제반여건과 환경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욕심같아선 외과쪽도 개방병원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동강병원은 개방병원 시행 노하우가 있어 잘 운영될 것으로 전망.

“어려웠던 점은 2003, 2004년 부족한 전문의료인력을 영입하려 동분서주했으나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스텝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일입니다. 속도 많이 상하고 안타까웠지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인력충원 문제를 다 해결해 이제 인력이 없어 진료를 못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망인력 적극 영입

“우수 의료인력을 영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 과정을 거친 실력이 검증된 인력을 뽑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스텝을 모집하는데 어떨때는 아주 애를 먹는데 채용이 잘 될 때는 신기할 정도로 잘됩니다.” 탄탄대로와 굴곡이 교차하는 인생살이와 다름이 없다는 표현이다.

지난해 하반기 영입한 순환기·호흡기·소화기 내과 스텝은 특성화 전문센터 지향방침에 부응해 아주 훌륭하게 진료에 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신한 젊은 의료인력이 병원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인재영입에 나선 결과 유망한 젊은 의사들이 많이 늘었으며 이들을 잘 육성해나가는 것이 병원발전의 요체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게 병원의 확고한 방침이다.

“(상당수의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듯) 그간 병원이 어렵고 침체상태에 놓여 2004년 재원환자가 400명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병원이 어려움에 빠져 직원을 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점, 지금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병상이 채워져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며 병원이 일시적으로 힘들더라도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농어촌 무료진료 등 진료봉사는 방송사, 라이온스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주최하는 활동을 함께 전개하는 등 해마다 적어도 5회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 병원자체적으로 무의탁 노인이나 의료급여 환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어촌 자매결연인 1사(社)1촌(村) 운동차원에서 울주군 범서읍 25개 영농마을과 협약을 체결해 열심히 도우며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주 5일제에도 불구하고 도농(道農)통합지역 특성(울주군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면적은 1056만km²로 서울특별시(605만km²)의 1.75배) 및 환자편의 측면 등에서 토요일도 전체 임상진료과의 절반(격주 로테이션)이 진료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 40시간제 시행전과 토요일 환자수의 변동이 없다.

아침일찍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외래진료시작시간을 오전 9시로 30분 정도 앞당겨 호응을 얻고 있다. 오전진료는 오후 1시까지.

뜻깊은 병원 방문 Home-coming day

처음엔 의사위주로 기획하다가 간호파트 및 행정직을 망라해 병원을 거쳐간 전체 병원가족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옛 병원식구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동창생처럼 들뜬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 과거를 회상하며, 25년 동안 달라진점, 좋아진 점을 얘기하고 눈으로 확인하며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줌으로써 개원 50년 나아가 100년을 향한 병원발전의 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Home-coming day에 맞춰 원래 가을에 열던 나이팅게일 행사도 앞당겨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시민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차원에서 시작해 올해 다섯번째를 맞는 동강건강마라톤 대회는 3000명 정도나 참석하는 울산시민의 축제로 발전했다고.



■ 87년 전문의 자격고시 100% 합격
□ 관찰경



목표 향해 전력투구... 중도포기란 없어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좌우명입니다.”

일을 하다보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수반되며 실패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는 없다는게 생활철학이자 신념이다.

개원기도 날로 경쟁이 치열해 개원의가 일반 종합병원으로 U턴해 오는 경우가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일반 병원은 몰라도 전공의 수련교육병원은 개업기간 만큼의 갭이 커 적응이 쉽지 않아 개원가의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사람을 너무 못구해서 도저히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개업의는 안 뽑을 생각이라고. 그는 일단 병원문을 나선 사람을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KHA**



■□ '성실·화합·진절'을 원훈으로...
□■ 2000. 6. 13. 동강한방병원 개원